



상해에서 인쇄기술 향연

10월29일부터 4일간 중국국제인쇄전 성황



20개국 420여 업체 출품

중국인쇄기술협회 (PTAC), 중국인쇄기술학회 (CAPT), 메세 뒤셀도르프차이나가 공동 주관한 중국인쇄전시회(All in Print China)가 국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해의 푸둥에서 10월 29일부터 4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상해의 중심부 국제전시센터(SNIEC)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미국, 영국,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스페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 23개국에서 480여 업체들이 전시 면적 40,000㎡의 전시장에서 신기술 경연을 펼쳤다. 하이텔베그, 만로랜드, KBA, 고모리, 미쓰비시, 아키야마 등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오프셋 인쇄기계 업체들이 대부분 출품했고 후지제록스, 애플컴퓨터, 휴렛팩커드, 캐논, 엡손, 아그파, 크레오, 다니폰스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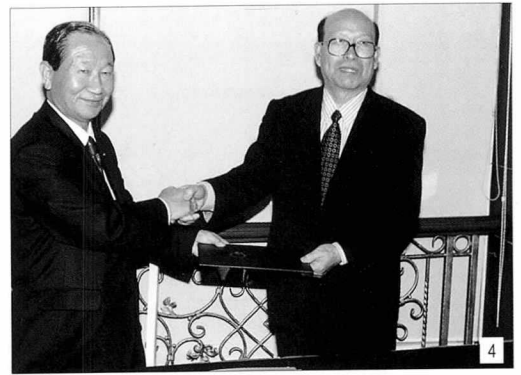
사이텍스, Yin King Hong, 에스코그래픽스, UPM-키메네 페이퍼, 바프스트 그룹 등 세계적인 프리프레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잉크가 독립부스를 마련, 우리의 잉크기술을 세계 각국에 선 보였다.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출품업체인 고모리가 '국제적 인쇄물과 부가가치 인쇄물의 개발 동향'에 대해 세미나를 연 것을 시발로 △최신 CTP 솔루션 시스템 △프로덕션 워크플로우 향상을 위한 크레오의 네트워크 △신규 교정 솔루션 △주문형 도큐먼트 솔루션 공급 방법 △인쇄산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통적 인쇄방식에서 디지털 인쇄방식으로의 변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와 스크린 테크놀로지 △담배종이 인쇄의 신경향 △고품질 포장인쇄 분



1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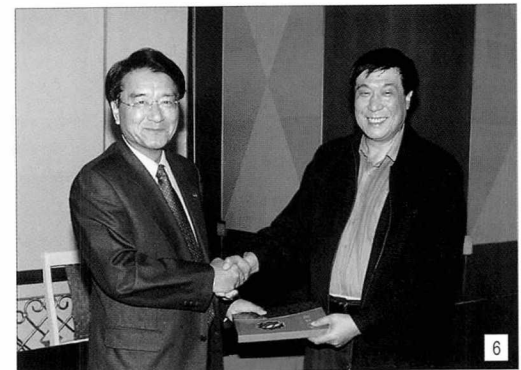


5

1. 29일 열린 개막식 모습
2. 28일 열린 환영만찬장에서 남북대표단 기념촬영
3. 동양인크 부스를 찾은 한국 대표단
4. 민재기 회장과 무문상 이사장이 비망록에 서명후 교환
5. 광득룡회장이 고복성사장에게 기념품을 증정
6. 고수곤 이사장이 고복성사장에게 기념품을 증정
7. 박충일 이사장이 무문상 이사장에게 기념품을 증정



3



6

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UV 및 광택 인쇄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북한대표단도 참석

개막식에 앞서 10월 28일 오후 6시30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에는 우리나라 대표단(단장 민재기)16명을 비롯, 세계 각국 출판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북한 대표단 5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측 대표는 무문상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과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박충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등과 헤드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단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날 만찬에 공식 초대되어 참석한 후 29일 개막식과 오찬에 초대되어 세계 각국의 인쇄인들과 교류를 나누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한국 대표단이 머물던 센추리 호텔에서 고복성 중국인쇄총공사 사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민재기 회장과 무문상 이사장은 8월31일부터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대표단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비망록에 서명했다.



7

한국대표단

단장 :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광득룡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고수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충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유덕근 (주)유정컴퍼니 대표이사 △김성희 대원인크 대표 △이성훈 (주)세양문화 대표이사 △김규로 명성비즈니스프 대표이사 △신기섭 뉴에스케이피 대표이사 △이정훈 HKE 상무이사 △유창준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 △윤성진 명성비즈니스프 부장 △양윤정 대양인쇄사 차장 △노재욱 조광출판인쇄(주) 과장 △유근룡 조광출판인쇄(주) 대리 △이현석 (주)세양문화 사원.